

## 삼성패션디자인펀드, 최강혁·손상락 디자이너 수상

삼성패션디자인펀드(SFDF)가 제17회 SFDF 수상자로 패션 브랜드 'KANGHY UK(강혁)'의 최강혁(사진 왼쪽)·손상락 디자이너를 선정했다. 이들은 인공·소재·균형을 콘셉트로 자동차 에어백이 가진 요소와 특징을 활용한 남성복을 선보이고 있다. 소재 연구, 컬렉션 상품, 해외 마켓 유통망 등을 토대로 창의성에 기반해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 현대차, 소니픽처스와 파트너십 시동



영화 속 스파이더맨과 '아이오닉5'. 사진제공 | 현대차

# 스파이더맨, 아이오닉5 타고 짜릿한 카액션

'스파이더맨:노웨이홈'서 현대차 등장 영화 주요장면서 역동적 볼거리 제공 IP·배우 활용 아이오닉5 광고 제작도 "엔터 협업 콘텐츠 제작 위해 노력"

현대차가 할리우드 영화에 명품 조연으로 등장한다. 12월 15일 개봉하는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주요 장면에는 '아이오닉5'와 '투스산'이 나온다. 차량을 통한 다양한 액션신을 선보이는 등 전 세계 관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스파이더맨 지적재산권(IP)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소니픽처스가 준비 중인 또 다른 영화에서도 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 ● '노웨이홈', 첫 파트너십 영화

현대차는 앞서 지난해 5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개봉을 앞둔 이번 영화는 양사 파트너십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노웨이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은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3번째 영



현대차가 소니픽처스와 손잡고 개봉을 앞 둔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관련 마케팅을 펼친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영화 포스터의 '아이오닉5'(왼쪽)와 '투스산'. 사진제공 | 현대차

화로, 마블 액션 블록버스터다. 8월 공개된 첫 예고편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 수 3억 5550만을 돌파하며 역대 영화 예고편 최고 기록을 수립했다.

전작보다 더 커진 스케일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액션들로 흥행에 대한 기대가 높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와 투스산은 영화 속 주요 장면에서 등장해 다양한 차량 액션신을 선보인다. 극적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역동적 볼거리로 관객들의 시선



을 사로잡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 ● 감독, 배우와 광고도 제작

현대차는 스파이더맨 영화와 연관된 IP를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감독 존 왓츠, 주연 배우 톰 홀랜드와 마치 영화의 숨겨진 스토리를 보는 듯한 아이오닉5 광고를 제작해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최근 론칭한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 내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에서도 스파이더맨 가상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고양에서 특별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제프리 잭슨 소니픽처스 글로벌 파트너십 총괄 부사장은 "선도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의 대명사인 현대차와의 협업으로 획기적인 콘텐츠들을 만들어 낸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스파이더맨 팬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토마스 슈미에라 현대차 고객경험본부장(부사장)은 "양사 전략적 파트너십의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작품으로 영화의 성공적인 흥행과 그에 따른 높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한다"며 "코로나로 지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즐거움 순간'을 전달할 엔터테인먼트 협업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소니픽처스와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내년 2월 개봉 예정인 영화 '언차티드', 내년 하반기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후속작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CJ제일제당의 건강기능식품 제품군. 사진제공 | CJ제일제당

## CJ제일제당 건강사업, 'CJ웰케어'로 독립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건기식 선두권 목표

CJ제일제당 건강사업부가 독립해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거듭난다.

이 회사는 23일 건강사업부 100% 현물출자방식으로 분할한다고 공시했다. 신규 법인명은 'CJ웰케어(Wellcare)'이며 분할 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CJ웰케어는 식물성 프리미엄 유산균 시장을 공략하고, 건강 문제를 케어하는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선두주자로 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CJ그룹의 4대 성장 엔진 중 하나인 '웰니스(치유·Wellness)' 사업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선두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다.

세부적으로 보면 독자 개발한 식물성 균주 기반의 100억 CFU(보장균수) 이상 고품질 제품 라인업으로 'B YO유산균' 브랜드를 대형화한다. 또 다이어트, 면역력 등의 기능을 추가한 차세대 유산균 개발에 주력한다.

아울러 신규 기능성 원료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스페셜티 제품의 포트폴리오도 확대한다. 전립소, 팟다운, 이너비 등 기존 브랜드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기능성 카테고리 제품도 개발한다.

다가을 '개인맞춤형 건기식 시장'을 겨냥한 사업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현재 생애 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기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맞춤형 유산균 솔루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장승훈 CJ웰케어 상무는 "CJ의 건강사업 노하우와 연구개발(R&D)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며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웰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 목·허리 통증, 정형외과 도수치료로 개선

직장인들은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면서 목, 어깨, 손목, 허리 등 관절부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 이는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측만증, 오십견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들은 통증이 만성화되기 전인 초기에 정형외과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기 치료 시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치료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수치료는 숙련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틀어진 근골격계를 수기로 교정해 통증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방법이다. 통증과 증상을 줄여주고 관절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손상 부위 주변의 근력을 강화해 증상이 재발하지 않게끔 돕는다.

수술적 치료처럼 별도의 절개나 마취, 긴 회복 기간이 필요없어 직장인들에게 적합하며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환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단 도수치료는 근막이나 관절처럼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를 정확히 파악해 세밀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과 전문 치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 근골격계 질환 전문의, 전문 도수치료사 있는지, 환자의 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한 맞춤 치료가 이뤄지는지 등을 확인한 후 치료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도곡동 양재본정형외과 임재욱 대표원장

## 부고

▲이재교(앤엑스씨 대표)씨 부친상. 이천희씨 별세, 윤준연씨 배우자상, 이재석(삼성SDS 상무, 베트남법인장), 이재용(KASA 부사장), 이재교(앤엑스씨 대표이사)씨 부친상=2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5일 오전 5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2258-5940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 "최첨단 기술 집약"...BMW, 순수전기 모델 'iX·iX3' 국내 출시

iX, 고급스러운 외관·주행성능 눈길 5세대 eDrive 탑재...제로백 4.6초

BMW 코리아(대표 한상운)가 23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플래그십 순수전기 모델인 THE iX와 X3 기반의 순수전기 SAV 뉴 iX3를 공식 출시했다.

THE iX는 BMW가 선보이는 첫 번째 럭셔리 전기차로 높은 수준의 주행감과 고급스러운 실내의 디자인, 진보된 유저 인터페이스 등 BMW의 최첨단 기술이 총 집약된 모델이다.

BMW THE iX는 X5 수준의 전장과 전폭, BMW X6의 전고, 그리고 BMW X7의 휠 크기가 조화를 이뤄 강력한 존



BMW 코리아의 플래그십 순수전기 모델인 iX(왼쪽)와 X3 기반의 순수전기 SAV 뉴 iX3. 사진제공 | BMW코리아

재감을 발휘한다. BMW의 최신 전기화 드라이브트레인인 5세대 eDrive가 탑재되어 있다.

합산 최고출력 523마력을 발휘하는 iX xDrive50은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6초, 326마력을 발휘하는 iX x

Drive40은 시속 100km까지 6.1초에 가속한다. 여기에 세계적인 작곡가 한스 짐머와 공동 개발한 BMW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이 기본 적용돼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높여준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iX xDrive50이

복합 447km, iX xDrive40이 복합 313km다. 가격은 iX xDrive40이 1억 2260만 원, iX xDrive50이 1억 4630만 원(개별소비세 적용)이다.

함께 선보인 뉴 iX3는 뉴 X3 기반의 순수전기차다. 최고출력 286마력을 발휘하는 BMW 5세대 eDrive 통합 전기 구동계가 탑재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8초에 가속한다. 1회 주행 가능 거리는 344km다. 가격은 7590만 원이다.

iX는 사전예약분을 제외한 물량이 BMW 코리아의 온라인 판매 창구인 'BMW 샵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며, 뉴 iX3는 25일부터 'BMW 샵 온라인'을 통해 서민 구매 가능하다.

영종도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